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홍해작전 뉴스

6월 6일은 가족 총동원의 날 나눔의 센터도 운영

우리 교회는 홍해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난 5월 13일 저녁 7시 찬양예배 때 참모임 명식을 가졌다. 이날 사령관인 이종운 위임목사는 참모들에게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강조하면서 홍해를 건너려는 무리들 앞에 서서 헌신, 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참모본부는 오늘(5월 20일) 오후 5시에 선교관 5층 당회실에서 홍해작전 설명회 및 기도회를 연다. 이 모임에서 본부측은 교역자와 장로들에게 홍해작전의 세부 계획과 진행 방침을 설명하면서 기도와 협력을 요청하게 된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교구와 교회학교 각 부서별로 나누어 진행될 가족 총동원의 날 행사와 나눔의 센터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으로써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전교 첫날인 6월 6일 가족 총동원의 날에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은 새벽 5시에 있는 비상새벽기도회에 모두 나와 성도 개개인의 영적 자세를 새롭게 하고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한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45분간의 기도회가 끝나면 14개 교구와 26개 교회학교는 6시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배정받은 교회 안팎과 전철역, 지하철도를 청소하게 된다. 작은 생활실천운동의 하나인 이 대청소 운동을 통하여 성도들은 교회의 구역구석과 인근 마을 및 지하철역을 청소함으로써 청결한 생활을 익히게 될 것이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국시민 생활운동을 주제로 유치부와 초등부는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중등부와 고등부는 생활 표어 짓기와 포스터그리기 대회를 갖는다.

한편 18일부터 사흘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는 나눔의 센터는 쓰고 남은, 그러나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의류, 학용품, 책, 장난감을 서로 교환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성도들 각자가 근검절약의 정신과 나눔을 대접하는 사랑



지난 5월 13일 찬양예배 때는 홍해작전 참모들을 임명하였다.

을 몸소 실천하는 전국시민 생활운동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눔의 센터 운영에, 영아부의 어린 학생들로부터 시작하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나눔의 센터에 출품할 의류, 학용품, 책, 장난감은 16일까지 각 교구와 교회학교 부서별로 집수를 받는다.

가족총동원의 날과 나눔의 센터 운영뿐 아니라 이밖에도 홍해작전의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참모본부는 요일별로 주력 교구를 정하였으며, 원거리에 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취침장소를 마련케 했다. 그러나 차량을 동원할 수 있는 성도들은 구역식구들과 동승함으로써 사랑도 실천하고 함께 은혜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봉사는 교구별로 정하여 하게 되는데, 비상새벽기도회 후 직장 출근자를 위한 식사와 음료(충현차) 준비는 무디여전도회와 에스더여전도회, 영입용 택시 기사에게 껌과 전도지를 배포하는 일은 요한남전도회와 베드로남전도회가 지회별로 돌아가며 봉사하게 된다. 그리고 한나여전도회 협의회는 제2차 총동원의 날(17일)에 충현의 만나(떡)를 준비하고 분배하게 된다.

✧ 교구별 동원 일정

요 일	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력교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교구별 봉사 일정

날 짜	6/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봉사교구	1	2	3	4	5	6	7	8	9	10	11	한나	12	13	14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요즈음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학생들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주일 저녁예배나 수요일예배가 사라졌는지조차도 기억해 낼 수 없을 만큼 공부하기에 바쁜 학생들을 교회에 서까지 잡아둘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인 사고에 의하여, 교회도 그런 현실에 철저하게 적응하게 된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라고 아 니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성장하여 공부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되면 저녁예배나 수요일예배에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한 과외수업을 받기 위하여 열을 올리면서, 있던 예배까지 없애야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교회의 제1교육위원회에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일 저녁예배와 수요일예배를 최근 부활시켰습니다. 이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부모님들이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의 후세들에게 바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협력하고 분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전체에 새벽 찬을 깨우는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 5. 20

이 종 윤 목사

5월 16일에 제4회 충현선교세미나 가져



우리 교회의 세계선교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저녁 8시 30분 갈릴리 홀에서 제4회 충현선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충현교회가 세계 선교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성년기에 접한 시절에서 지나간 선교사역의 빨라치켜 돌이켜 보고 2천 년 대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의 수립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 세미나에 우리 교회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녀전도회 임원, 세계선교위원회 실행위원 등 다수가 참석했다.

고신대학 학장인 전호진 교수(우리 교회 협동목사)는 한국 교

회의 선교의 현실적 문제와 대책"에 대한 팔세 강연을 통해 자각 있는 선교사 후보의 선발과 훈련 문제, 선교 원리와 정책의 미비, 재정 지원의 한계성, 같은 지역에서의 동역 선교, 파송 교회와 선교사간의 보고 문제, 선교사의 처리 문제, 원주민 선교와 교포 교회에 담임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교단 차원에서 외국의 선교단체와 같이 선교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합동신학교 교수이자 미국장로교회(PCN)의 선교사인 박형용 교수(우리 교회 협동목사)는 용담을 통하여 선교사 후보 교육은 오랜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선교본부와 선교사회의 기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안식년에도 계속 본국으로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성경 이해

이 종 운 목사

핍박 중에도 증거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너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벧전 3:13-15)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주인 앞에서 종으로, 남편 앞에서 아내로, 정부 앞에서 백성으로 낮아질대로 낮아져서 종의 모습을 갖추고 그들을 섬기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 가도록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기독교인이 겪어야 하는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를 이루다가 우리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본문에서는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낚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었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창세기 4장 7절과 병행구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죄가 문 앞에 었드려 있다가 언제 우리의 마음속으로 뛰어 들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성금 뛰어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난을 축복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려고 준비시켜 주시는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제의 핍박이나 공산주의의 탄압이 사라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여러가지 문제로 핍박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팔리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례를 따라 살려고 하다가 재산도, 명예도 빼앗기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면서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마 5:10-12).

땅의 것에 전부가 아니며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을 안다면 우리들은 하늘에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가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약속 이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는 고난의 때가 바로 축복의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속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했습니다(고 후 12:1).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천대를 받고 곤고한 지경에 이를 그때, 인간적으로는 가장 약해질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때가 되기 때문에 가장 강한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좋은 것들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겠으나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오

영을 지배하시고 육신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권이 되시고 보호하시니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력 투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비유는 것을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요 17:15)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를 위하여 더욱 담대해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담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독교인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요 16:30).

3. 전도의 선을 행하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된 길이지만 참고 견디는 단계에만 머물지 말

고통을 감내 하며 하늘의 상급 바라보는 신앙

최고의 선은 전도하는 것

를 핍박받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이라는 본문의 말씀은 가정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금, 핍박의 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다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양심을 묻어 두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더라도 우리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조금도 굴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2. 하나님의 보호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약행한다는 말과 13절의 해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때문에 어떤 악도 우리들을 해하지 못하고 어떤 죄도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하게 위하여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참담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하여 간수장에게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울은 신실한 행위와 태도로서 부연의 전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탄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비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작정할 정도로 담대한 사도로 변화된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원고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의 주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인정

하는 사람만이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언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두움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무서워하게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심판의 날에 죄로 인해 형벌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도 갖게 됩니다. 이 소망은 믿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은 주님의 구원을 미래적으로 보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구원이나 재림에 대한 언약은 장차 이루어질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미 그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나 완성은 아니다. 이미 복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아직은 실현은 되지 않았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구원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소망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에 근거한 소망은 쉽게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은 영원합니다.

스데반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오해를 받아 돌에 맞아 죽게 되었지만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행 6:8-7:60).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 증거에 대한 용기를 불러 일으켜 줍니다. 소망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다면 그는 참된 소망을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참된 소망을 가진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이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전도할 때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소망의 이유로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종과 같이 섬기는 자세로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예외와 질서를 존중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박해자의 마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온유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핍박중에서도, 옥중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완전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홍해작전에 앞장서며

참모장 우 기 전 장로

홍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후 겪은 가장 큰 시련이요 난관이었습니다. 홍해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뒤로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뒤에는 죽음의 애굽 군대가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졌고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음은 국민이나 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값의 폭등, 증권시장의 불황, 그칠 줄 모르는 물가의 상

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감과 불신과 거짓, 사치와 과소비, 음란과 퇴폐, 마약과 폭력, 불법과 불의, 질서와 교만 등 사회정의의 부재와 노사문제, 학원문제, 지역감정문제와 정계 불안정 등 어느것 하나 마음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일천만 기독교인들은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할 것입니까. 총현의 성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단연 분기해야 합니다. 누란(累卵)의 위기에 놓인 조국의 현실을 근심으로 가슴에 묻고 지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3차 홍해작전을 전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2000

년대를 향한 천국시민 생활운동'이란 주제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갈 6:2)는 표어로 대기도 운동과 함께 절제운동을 전개합니다. 6월 6일부터 15일간 비상새벽기도회와 3일간의 천국시민영성잔치, 나눔의 센터 운영, 절제헌금, 교회 안팎의 대청소, 교회학교의 글짓기, 그림그리기, 사랑의 집 기공, 돌 성경봉헌 등 다양한 행사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나를 위하여는 힘을 다해 절제하고, 남을 위하여는 힘을 다해 봉사하는 이 천국시민 생활운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은 물론 내 가족, 내 구역식구, 내 이웃을 총동원하여 나와 나라를 위한 이 대개혁운동이 기필코 성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힘을 다합시다.

일부 부서 사용장소 변경

날로 부흥하는 교동부가 소석관 507호에서 더 이상 집회를 갖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오늘(5월 20일)부터 집회시간도 앞당겨 8시 30분부터 갈릴리 홀에서 예배를 드린다. 또 분반 공부는 분당 지하 분반공부실에서 하며 교사실과 면회실로는 분당 제4다락방(404호)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갈릴리 홀에서 주일 오전 9시에 드리던 영어예배가 같은 시간에 배다니 홀에서 드린다. 또 에바다부 학생반은 소석관 109호에서, 교사들은 소석관 115호에서 모인다. 새가족부 교사들은 분당 203호를, 범조인선교회는 선교관 401호를 사무실로 사용한다.

청년연합집회 개최키로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1부, 청년2부는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예수, 젊음, 그리고 삶"이라는 주제로 청년연합집회를 개최한다.

양적,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대학부, 청년1부, 청년2부는 친밀한 교류를 통해 연대 의식을 가짐으로써 교회 내 청년층의 신선한 결속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주님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이 집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 집회에서는 "총현 청년의 위상과 역할"(이종윤 목사), "크리스찬의 사회적 책임-가난, 부, 검소한 삶"(김정우 목사), "크리스찬의 결혼관"(김만풍 목사)에 대한 세 차례의 강의가 있을 예정이며 "공동체 연습"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총현교회 젊은이들의 자기 발견의 시간이 될 이 집회에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제10교구

구역일꾼 모임

제10교구는 5월 23일(수) 12시 30분 만나 홀에서 제3차 홍해작전의 승리를 위한 구역 일꾼 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은 지역별 동원 체계를 확립하여 전교구 가족 총동원을 위한 것으로서, 지역장, 부지역장, 협력구역장, 구역장 및 권찰 전원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금번 홍해작전이 국가와 교회의 갱신과 부흥뿐 아니라 원거리 교인이 많은 제10교구가 단합하고 성장하

오르간 봉헌예배

오늘 저녁 7시에 드려

지난 3월에 설치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당 오르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오늘(5월 20일) 저녁 7시 찬양예배 때 드린다. 이 예배에서는 봉헌을 기념하는 연주도 있을 예정인데, 아멘찬양대의 반주자인 백금옥 집사가 찰스 아이브스가 작곡한 "피난처 있으니" 등을 연주한다.

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될 것이다.

초등2부

6월 3일까지 총동원초청잔치

봄 기운이 완연한 요즘 교회학교 각 부서는 믿지 않는 어린이들에 대한 전도활동이 한창이다.

특히 초등2부는 4월 29일에 시작하여 6월 3일까지 총동원 전도잔치를 갖고 있다.

초등2부 학생들은 "내 친구는 어디 있어요"라는 주제 아래 김경성 전도사의 지도에 따라 학생

들이 직접 쓴 사랑의 편지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며 전도를 하고 있다. 이 잔치 기간 중에 새로 나온 친구들이 모두 모이는 6월 3일 총동원 주일에는 동화 구연, 성가대의 특별찬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새 친구들을 환영할 예정이다.

하나이 되어

물새긴 양털이라 마동을 잊고
빛바랜 꽃잎엔 양 절박한 연약
동들넉 나팔되어 초창이 왔네
역삼동 새길 틈새 소망의 물결

파도들의 일렁거리는 웃음소리여
회색의 눈 휘어진 허리 마음의 파편
홍해 바다 큰 물결 언덕 향해 버리어
큰 자랑이 하나이 되어 날아 가르고...

총현의 성도여 발맞춰 향오를
아! 소리 심령을 두들긴 보혜사
생명수 가득히 사랑을 주셨네
이천년 상부와 신자와 성령께
신령과 진정과 찬미를 드리리

김 보 경 집사



아끼는 마음



김 영 개 장로

1988년 12월 20일, 이날은 우리 생애에 잊지 못할 기쁨과 감사와 감사의 날이다.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성전헌당 집사예배를 드린 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집장인 원로목사님에게 헌신제명을 주시어 1970년 11월 15일 이곳 장남에 교회 선주 부제를 구입해 하셨다. 그 후 18년 동안 집장인 원로목사님을 원두로 하고 총현의 온 성도들이 갖은 배반과 해방과 교만을 참고 견디며 기도과 눈물과 땀과 감사를 다함으로 이 성전에 세워졌다. 성전 둘 하나 하나에 온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정성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껴야 할 것이다.

아끼는 마음은 곧 사랑하는 마음이다. 성전 건물과 교회 안의 시설과 비품을 아껴야 된다. 성전문 하나도 쟁중히 다뤄야 하며, 식당,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조심성이 있어야 하고, 피아노, 책상, 의자, 마이크 등 교회 안의 모든 비품을 다룰 때도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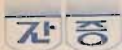
교회나 교회학교는 이런 맨의 교육에 더 힘써야 될 줄 안다. 또한 교회는 건물과 비품관리로 계획성 있게 면밀히 하여 건물수리비를 절감하여 비품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지혜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후대에 거저에 없는 신실한 믿음과 함께 자라하고 깨끗한 성전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 지출되는 모든 물질은 성도들이 피땀흘려 번 돈을 정성껏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다. 거룩한 돈이다. 그러므로 돈을 쓰게 전에 미리 심사숙고하여 과소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 조심성 있게 아껴야 할 것이다. 추후라도 즉흥적이거나 과시적이거나 과다하게 쓰여져서는 안될 것이다. 교회 안의 전기 한 줄이라도 아껴쓰는 것이 한 장이라도 아껴써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잔혹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안을 돌아보면 빈 방에 전등이 켜져 있는 곳, 과다하게 만들어진 유인물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요즈음 교회 안에서 갱지로 된 유인물은 당회 때 쓰이는 당회 회안뿐이다. 그 외에는 한번 쓰고 버리는 순서지나 안내장에 이르기까지 거의가 뽀뽀하고 고급스럽고 두꺼운 용지로 된 유인물이다. 거기다가 때로는 오색찬란한 1회용 유인물도 눈에 띈다. 오조지의 값은 갱지의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이다.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여러대가는 지금에 나라를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가는 사치와 과소비 풍조가 교회 안까지 밀고 들어오지 않을까 심히 두려운 마음 글할 길이 없다. 어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 절제하고 검소하여 유인물 하나부터라도 검소하게 만들어 교회밖에서 볼 때에 총현교회는 소문나는 달래 자신을 위하여서는 돈을 아끼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서는 물질을 아끼지 않는 모범원 교회로구나 하는 칭찬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나아가서는 사치와 과소비 풍조에 물들은 이 나라 학생들에게 각성을 주며 온 백성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다음호 세기등은 자신을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김 후 진 권사

6.25사변 때 월남한 나는 다른 식구들보다 먼저 월남하여 군의관이 된 오빠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밀양을 교회에서 학습과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다.

남편은 고학을 하며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방촌에서 개업을 하였다. 그 당시에는 사회가 너무나 가난하였기 때문에 치과병원을 찾는 환자라야 너무 아파서 하는 수 없이 발치하러 오는 사람들 뿐이어서 생활해 나가기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래서 남편은 병원 문을 닫고 국유지를 불하받겠다고 돌아다니면서 믿음을 팔아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술과 담배를 즐기기 시작하였다. 외박도 밥먹듯 하였다. 십일조 헌금을 드린다고 남편은 나에게 손지검을 하고 집안을 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기가 일쑤였다.

그때에 아이들 고모가 자기와 함께 충현교회에 다니자고 하여 충현교회로 적을 옮기게 되었다. 전도사였던 아이들의 고모부는 치남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지만 한 번 세상길로 내려간 남편은 좀처럼 돌아오지를 않았다. 사랑하는 자를 그대로 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물질로 남편을 치셨다. 이태원 집이 친구 빚 보증으로 은행에 넘어갔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

가 경영하던 불럭 공장을 인수하게 하였다.

남편도 죄를 짓고 괴로워하며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 회개하면서 술 마시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였다. 그렇게 계속하여 죄를 범하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큰 딸을 치셔서 삼 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중에서 허덕이게 하였다. 본인 스스로도 자기의 죄 값으로 하나님께서 딸을 치셨다고 인정하면서도 철저한 회개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더니 하루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자기는 이내 죽겠으니 너희들은 예수 잘 믿고 착한 사람들이 되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그날 오후에 고혈압으로 쓰러진 후에 다시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운명하였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산 증거를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 주신 것이다. 그 동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하였던 사실을 남편이 죽은 다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다.

남편이 치과의사로 지내다가 운명했다면 자식 4남매를 거느리고 살아 갈 길이 막막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삼년 전에 불럭 공장을 인수하게 하셔서 남편 없이도 혼자서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신 후에 남편을 불러 가셨다.

전국적으로 극심한 홍수가 있었던 84년의 일이었다. 건축현금을 계속 바쳐오던 중 80만원을

남겨 놓고 고전을 하였다. 교회에서는 긴급 부흥회가 열렸다. 교회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나는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직 드리지 못한 헌금을 모두 바쳐야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여기 저기에서 수금을 하여 모은 돈 50만원을 주일에 가지고 가려 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공장에 쌓아 놓은 시멘트가 모두 물에 잠겨 교회에 갈 수가 없었다. 마침 그날 목사님께서 심방을 오셨기에 건축현금을 대신 교회에 내달라고 하였다. 여기저기 돈 쓸 곳이 많은 상황에서 수급한 것 전부를 헌금하려고 하니 마음에 갈등이 생겼다. 그런데 딸아이가 그 돈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먼저 쓰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바치면 또 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성령은 어린 딸을 통하여 나를 일깨워 주셨던 것이다.

다음날 집회에 참석하였더니 전도사님께서 교회에서 나온 구제비를 전해 주셨다. 교회 형편이 어려운 때라 한 삼, 사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구제비 봉투 안에는 삼십만 원이 들어 있었다.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셔서 건축현금 80만원 전부를 바치게 되었다.

벽제 구역은 지역적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찾아드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별로 없다. 어려운 가정에 쌀을 사 주고, 병원비를 대 주며, 학자금도 마련해 주면서 돌보고 있다. 내가 돌보고 위하여 기도한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체를 통하여 열심히 봉사하며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물질을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없이 큰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장년 1부 어린이반 운영

매주일 12시 30분 소석관 407호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장년 1부는 참석하는 회원들의 자녀가 대부분 나이 어린 미취학 아동이어서 평소 집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장년 1부는 좀더 효과적인 집회와 아울러 어린이들의 영적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어린이반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 어린이반은 70여 명의 어린이가 참석하고 있고 현직 유치원·국민학교 교사와 또 두 분의 보조 교사가 봉사하고 있다. 성경 공부 외에도 공작, 율동 등의 다양한 시간을 통해 무척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어린이 주일인 5월 6일에는 지도 교역자인 이조송 강도사의 말씀과 선물도 나누어 주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와 교사들도 학용품과 장

난감 등을 기증해서 어린이반을 꾸며 주고 있고 예전보다 집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반가워하고 있다. 참석하는 어린이들에 비해 장소가 비교적 협소하고 전문 교사들도 부족한 편이어서 기도를 원하고 있다.

장년 1부는 젊은 부부들이 주축이 되어 모이는데 현재 재적 인원이 186명으로, 5월 26일에는 가족 및 반 연합찬양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찬양대회를 통해 천교와 함께 회원 전도도 할 예정이고 특히 부부별로 되어 있는 부부반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아직 젊은 연령층이라 가정에서의 활동이 많아 어려움이 많지만 어느 부서보다 사랑과 활기가 넘치는 부서인 장년 1부에 해당하는 충현 교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초등 각부 주일저녁예배와 수요일예배 부활

우리 교회 제1교육위원회에 속한 초등 각 부는 몇년 전에 사라졌던 교회학교의 주일저녁예배와 수요일예배를 다시 드리기로 했으며, 이미 초등 3부는 5월 첫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교육 부서의 부흥에 자극제가 될 것이다.

신간안내 신앙칼럼 《순례자》 《1990년도 교회요람》

충현교회 출판부는 현재 동아일보 문화면에 연재되고 있는 이종운 위임목사의 칼럼 원고를 모아 《순례자》를 발간했다. 포켓 사이즈인 이 신앙칼럼집은 여러가지 인생문제로 영혼이 갈급해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일신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우리 교회 기획실은 《1990년도 교회요람》을 펴냈다. 이 요람에는 교회의 연혁, 회칙을 비롯하여 교회조직, 사무분장 규정, 교회학교와 찬양대의 부서별 조직, 예배, 교육, 선교, 구제 활동에 대한 사진화보, 제직회원의 새롭게 일신시킬 수 있는 내용을 사진과 주소록이 실려 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1과 제1계명

성경 : 6 : 4~9

요절 :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6 : 5)

찬송 : 30, 44

제45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46문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여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47문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

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제48문 제1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내려다 보시고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설 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 낸 우상일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높이는 것이 제1계명의 핵심이요, 제1계명은 곧 십계명의 핵심이 됩니다. 사신우상들이 확보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질 문

-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까(시 10 : 4, 14 : 1)?
- 우상숭배의 실체는 무엇입니까(골 3 : 5)?
-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마땅합니까(신 10 : 12; 대상 28 : 9)?
- 나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